

고창 외국인 계절 근로자 1천명 배치

영농철 맞아 캄보디아 등 협약 체결국·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농가주·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등 진행...500명 추가 입국 예정

고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올해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을 농가에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 업무협약 체결국가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1000여명이 입국했고 앞으로도 농가 필요시기에 맞춰 캄보디아·베트남 계절근로자 500여명이 지속적으로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올 상반기 농가형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등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총

16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서 승인·배정받았다.

지난 1월에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주무팀장, 농촌인력팀장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방문해 지역 영농환경에 적합한 신규 근로자를 직접 선발했다.

이 외에도 중대 위반사항 확인, 무단이탈 방지 대책 논의를 진행해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군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과 고충 해결을 위해 통역관과 인권지킴이 전문관을 배치하고 언어

소통도우미 책자를 각 나라별로 제작해 배포했다.

계절근로자는 고창 인근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진행하고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에 이어 입국 환영식을 진행하고 있다.

입국 후 고창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최대 8개월간 수박, 멜론, 고추 등 고창 지역특화작물 재배현장에 투입돼 부족한 일손을 메울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을 찾는 계절근로자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올 가을 '문화의 달' 기대하세요"

행사추진위 회의...판소리·농악 등 전통 콘텐츠 다채



최경식(맨 오른쪽) 시장이 지난 19일 남원아트센터에서 열린 '2024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2024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준비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9일 남원아트센터에서는 '2024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개최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는 남원시가 선정됐다.

추진위는 국립민속국악원 김중현 원장, 한국예총전북자치도연합회 이석규 회장, 서울대 김병중 명예교수,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 오충섭 지사장, 전주세계소리축제 김희선 집행위원장, 남원농악보존회 김경현 회장 등 10명이다.

2024 문화의 달 행사는 '남원 전통과 퓨전의 소리 풍류에 빠지다'란 주제로 오는 10월18일부터 3일간 남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막식과 창극, 판소리, 농악 등 다양한 전통 콘텐츠가 공연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은 한국 국악 및 농악의 성지이며 고도의 역사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라며 "문화의 달 행사를 통해 지역 유형·무형유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대중과 교류해 전통예술의 분향 남원을 널리 알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철새들의 낙원 '고창갯벌' 서식처 관리 나선다

고창군, 안전펜스·안내판 설치 4~6월 철새지킴이 인력 배치



검은머리물떼새.

고창군이 '고창갯벌 천연기념물 서식처 보존관리 사업'에 나선다.

고창군은 주요철새 서식지(상하면 자릉리 일원)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과도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철새 집중도래 시기인 4~6월 중에는 철새지킴이 인력을 배치해 인위적인 간섭이나 방해 없이 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군은 전했다. 접근이 쉬운 만큼 인위적 환경에도 쉽게 노출돼 서식지의 훼손과 철새 개체 수 감소 등의 우려가 커져 왔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종의 철새를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어 전국의 탐조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수의 관광객이 찾는 생태환경의 명소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7월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재도 황새와 빨레비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160여종 10만여마리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창군 최초로 고창갯벌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새(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가 이곳에서 새끼를 낳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마리 남짓이라 추정되는 빨레비갈매기(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도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는 조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어린이 '피노키오의 모험'으로 초대

25일 연지아트홀서 뮤지컬 공연

정읍시가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극 '피노키오의 모험'을 뮤지컬로 무대에 올린다.

정읍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연지아트홀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어린이들을 '피노키오의 모험' 무료관람에 초대한다고 밝혔다.

'피노키오'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던 동화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내용으로 유명하다.

극단 코스모스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제페토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통해 소솔해지기 쉬운 가족 간의 사랑을 담은 뮤지컬이다. 관람은 공연 시작 30분 전 선착순을 통해 입장해야 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말쭙꾸러기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는 교훈을, 부모님들께는 추억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건축·토목·전기·소방 안전 점검

집중점검단 6월21일까지 놀이시설·노후 건축물 등 107개소

정읍시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읍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다.

시는 이 기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집중안전점검단을 꾸려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건축물, 주민 신청시설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교통시설 등 총 10

개 분야 107개소의 안전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읍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안전 신고 활성화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내 집, 내 점포 자율 점검하기' 등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한상민 정읍시 재난안전과장은 "시민들이 내 주변 시설물들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

6억원 투입 6월 완료

남원시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곡동 일원에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0.3km를 신설해 교룡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말 착공해 오는 6월말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개장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교룡지구는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으로 별

도 정화조를 사용함에 따라 토양·지하수 오염과 악취 등 각종 문제 발생이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화조가 폐쇄되면서 그간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만 남원시 환경사업소장은 "교통공원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장소인 만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업으로 오는 6월말에 개장하는 숲속야영장이 여름휴가 명소를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